

제 1 0 회 한일N C C - U R M 협의회 공동 성명

한국기독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NCCK-Justice and Peace Committee)와 일본기독교 협의회 도시농촌선교위원회(NCCJ-URM)가 공동주최한 제 10 회 한일 NCC-URM 협의회는 ‘생명, 정의, 평화’를 주제로 일본 교토의 간사이 세미나하우스에서 개최하였다. 2013년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우리가 다시 만나 배움과 친교의 시간을 가진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올해는 1978년 제 1 회 한일N C C - U R M 협의회가 한국 서울에서 개최된 지 35년이 되는 해이며, 2013년 10월에는 제 10 회 세계교회협의회총회(WCC)가 한국 부산에서 개최되는 이 때, ‘생명, 정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음을 기억하고, 한사람 한사람의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기를 바라면서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한일 양정부는 「경제성장/경제회복」의 미명 하에 생명·정의·평화를 돌보지 않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함으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도시와 농어촌의 사회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이는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 우리는 ‘웃을 짓고 재를 쓰는’ 심정으로 참회하며 회개한다. 지금도 역사의 현장에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실 것을 믿는다.

지난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과 동시에 일어난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심각한 피해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인간의 오만함을 폭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정부와 재계는 원자력 정책 유지에 온 힘을 기울이려 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된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는 가운데, 한일 정부가 동아시아의 긴장상태를 실제 이상 강조함으로 양국민들에게 진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에 우려 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는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일양국의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창조세계의 선한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성찰하며, 다시 협의회에 주어진 다음과 같은 공통 과제를 진지하게 공동으로 감당할 것을 확인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 성명이 제 10 회 WCC는 물론 한일 양 정부에게도 혁신적인 의제로 의제로 반영되기를 강력하게 바라는 바이다.

하나, 한일 양 교회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영향과 피해를 은폐, 축소하려는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바른 정보공개를 요구한다.

하나, 한일 양 교회는 매해 3.11 직전 주일을 탈핵기도주일(주간)로 지킨다.

하나, 한일 양 교회는 탈원전과 지속가능한 대체 에너지 개발을 양국 정부에 요구한다.

하나, 한일 정부는 국내의 경제적 불균형으로 파생된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과 정책을 요구한다.

하나, 한일 양 교회는 불평등과 차별의 고리를 끊고 고통 받는 사회적 약자(홀리스, 일용직 노동자, 해고노동자,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장애인 등)의 인권을 위해 시민단체 등과 연대하여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한다.

하나, 한일 양 교회는 성장 맘몬(배금)주의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스스로 작아지기 위한 진정한 나눔을 실천한다.

하나, 한국정부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중단하고 미국은 오키나와 미군기지를 철수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한일 양교회는 일본정부에 의한 평화헌법 제9조의 개정을 위한 모든 시도를 중단하고, 동북아시아 각국은 영토분쟁을 일으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한일 양교회는 미국으로 하여금 아시아에서의 전쟁연습을 중단하고, 동북아시아의 모든 나라는 군비증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한일 양 교회는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아 남북의 평화와 세계평화를 위해 평화협정을 당사자들이 체결하도록 촉구한다.

하나, 한일 양 교회는 국가주의(내셔널리즘)를 강화하는 이데올로기를 배격하고 상생평화의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힘써야 한다.

하나, 제9회 한일 NCC-URM 협의회의 성명에 의거해, 간토 조선인학살 희생자 90주년 추도식 한일 공동준비위원회에서 준비한 '간토 대지진 조선인학살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지지하고, 한일정부의 조속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번에 확인한 공동 과제를 인식하고 상호 교류를 위해 제 11회 한일 N C C - U R M 협의회를 2015년 한국에서 개최한다.

2013년 3월 20일

제 10회 한일 N C C - U R M 협의회 참가자 일동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정의평화위원회

일본기독교협의회도시농촌선교위원회